

대한 기생충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면역학적 진단방법의 개발이 필요

김 재 진

참 북고도 누런 가을 단풍과, 이제는 소명을 다하고 다시금 한줌의 흙이 될날을 기다리는 낙엽 사이를 지나 제27회 대한기생충학회가 열리는 이화여대 미술대학 강당에 들어섰다. 농촌의 농부들도 애써 가꾼 곡식의 수확을 끝낸 11월2일 약 60여명의 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년간 가꾼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날, 이 가을의 하늘은 우리 회원들의 연구 업적만큼이나 높았다.

이번 학회의 특징은 우선 연제 수가 작년의 40연제에 비해 65개로 급증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기초적이지만 꼭 필요한 연구에서 부터 최신 기술이나 기법을 이용한 연제까지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연구가 눈에 많이 띄었다. 또한 학술발표가 하루로 제한된 관계로 모든 연제

를 전부 구두발표하기에는 시간이 허락치 않아 포스터 발표로 23연제가 소개되었다. 학회가 열리는 장소가 미술대학건물이라 미대생들의 작품이 복도 양쪽 벽을 장식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포스터발표를 위해서 전부가 미대생들의 작품을 능가하는 시각으로 구도나 사진의 배열이 미대생들을 앞질렀고 군더더기 없이 말끔하게 연제의 요점만을 간추려 소개하여 예년보다 놀라운 발전을 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필자의 관심을 끈 몇가지 연제를 간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한때 우리나라에 창궐하였던 말라리아가 70년대 말이후 급격히 감소되어 이제는 새로운 환자의 보고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외여행객이나 열대지역체류자에 있어서 현지에서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귀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26개 종합병원의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말라리아환자의 통계에서 나타난 결과로서 앞으로 해외출국자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말라리아 이외에도 세계보건 기구의 중점 관리대상인 6개 열대성 질환의 하나인 사상충증은 제주도 남쪽 서귀포 남원면, 표선면 일대에서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20% 정도의 비교적 높은 감염률을 보였으나 지금은 급격히 감소되어 1%미만을 보이고 있었으며 매개 모기도 그 수가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김동찬박사(국립보건원)의 연구 보고가 있었다.

금번 학회에서 구두발표된 연제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기생충은 요꼬가와흡충이었다. 최근 요꼬가와흡충과는 유사하나 일부 형태학적으로 다른 종류를 高橋吸虫이라고 해서 별개의 종으로 인정하는 학자도 있고 요꼬가와흡충의 변종으로 인정하는 학자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금강 상류에서 잡은 붕어 등 민물고기를 실험실내에서 백서나 마우스에 감염시켰을 때 이 高橋吸虫(Metagonimus y. takahasi)의 성충을 얻을 수 있었다는 김종환교수(충남대)의 발표와 원주에서 한 환자에 구충제를 투여하여 이 高橋吸虫(타카하시 흡충)을 얻었다는 안영검교수(연세 원주의대)의 증례 보고가 있었다.

소화기계통에 기생하는 기생충의 경우, 주로大便검사에 의해 충란이나 충체를 검출함으로써 진단되는데大便검사는 번거로운 단점이 있어 면역학적 진단 방법

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면역학적 진단 방법이란 기생충 감염으로 인해 우리 몸속에 생기는 그 기생충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항체(특이 항체)를 검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근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값이 싸고 조작이 간편하며 신빙성이 높은 ELISA법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간흡충이나 폐흡충 그리고 유구낭충증의 진단에 있어서 이러한 ELISA법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고려의대 이준상교수는 간흡충이나 폐흡충 감염 환자의 소변과 혈청을 채취 분리하여 ELISA법을 시행한 결과 혈청과 소변 내의 항체가 서로 연관성이 있으며 혈청내에서 보다는 항체가 낮지만 양성 과 음성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방법이 앞으로 이론적인 규명과 아울러 실용화되면 간·폐흡충증의 집단검사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갈고리촌충(有鉤條虫)의 애벌레인 유구낭충이 뇌속에 기생할 때는 주로 X선 검사나 컴퓨터단층촬영(C-T scan)에 의존하여 왔는데, 중앙의대의 조승열·김석일교수는 이러한 뇌부 유구낭충증의 면역학적 진단에 대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면역학 분야의 최신기법인 하이브리도마법(Hybridoma technique)을 이용하여 유구낭충에만 반응하는 특이한 단일 항체를 생산하는 림프 잠송세포종을 분리 배양하는 데 성공하였음을 보고하여 이 방면의 연구에 진일보 하게 되었다.

또한 이 뇌부 유구낭충증은 치료가 용

이하지 않다. 멕시코등 일부 남미국가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의대의 임한중교수가 프라지칸텔을 이용하여 뇌부 유구낭충증의 치료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번엔 연세의대에서도 역시 프라지칸텔을 이용한 뇌부 유구낭충증의 치료를 시도하여 일부 치료효과가 있었음을 보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치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하여 담당의사의 면밀한 주의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흡충류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서울의대에서는 휘브리콜라(Fibricola)라는 흡충의 중간숙주를 규명하는 연구 결과를 보고 하였다. 경북의대 최동익교수는 간흡충의 면역반응에 관한 연구로 마우스 복강삼출 세포와 비장세포의 이입이 간흡충 감염에 방어역할을 함을 관찰 보고 하였다.

기생충학회에서는 우리나라 기생충학계의 원로들에게 그분들이 평생 쌓으신

훌륭한 업적을 후학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특별강연을 마련하고 또한 그 업적을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병설, 소진탁, 주정균, 임한중교수에 이어 이근태교수(연세의대)가 금번 학회에서 「한국에 있어서의 람블편모충」이란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람블편모충의 배양이나 씨스트의 저항성, 진단과 병리에 관한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회원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비록 의자는 딱딱하였고 남자로서 난생 처음 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느낀 여자대학에서의 학회였지만, '풍성한 연구의 결실 못지 않게 포근한 회원들의 따스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는 민흥기회장의 마지막 인삿말을 뒤로하고 나오는 길엔 어둠이 짙게 깔린 7시 반의 가을 달빛이 어리웠다.

(필자=연세의대 기생충학 연구강사)

● 토막상식

암의 위험신호 7개항



① 위

위의 불편함이 있어 식욕이없고 좋아하는 것들이 마음에서 변하고있지 않는가

② 자궁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나, 부정출혈은 없는가.

③ 유방

유방의속에 응어리는 없는가.

④ 식도

마실때에 메이는 일은 없는가

⑤ 대장 직장

변에 피혹은 점액이 석기는 일 없는가

⑥ 위

기침이 연속하든가 담에 피가 석기든가 하는일은 없는가

⑦ 신장 방광 전립선

소변 보기 힘이 들든가 피가 석기어지는 일은 없는가.